

나주에 '안세영 체육관' 고향사랑기금으로 추진

'타오르는 강 문학관' 조성 등 나주시, 기금사업 2건 선정 2개 사업 3년간 총 30억원 공공 클라우드 펀딩 방식 모집

2024파라올림픽 베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업적을 기리는 체육관 건립이 고향 나주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나주시는 '안세영 체육관 기념 공간 조성-꿈나무 육성 지원'과 '타오르는 강 문학관 조성 지원'을 고향 사랑 지정 기금사업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특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하는 제도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 클라우드 펀딩과 유사한 방식이다. 나주시는 2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3년간 모금액

목표를 설정하고 본격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세영 체육관 건립 사업은 기념 공간 조성을 비롯해 유망주 육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3년간 20억원을 모금할 예정이다. 영산포 '타오르는 강 문학관 조성 지원'은 문학관 전시 공간 확충, 문학 강좌, 문학제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년간 10억원을 모금 목표로 정했다. 앞서 지난 4일 타오르는 강 문학관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 문학관은 영산강과 강 중심부에 위치한 나주 영산포를 무대로 쓴 9권의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에서 영감을 얻어 개관을 준비해왔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이번 고향 사랑 기부 지정 기금사업은 지역 체육, 문화 진흥 등 지역 발전과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해 중요한 투자"라며 "기부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기금사업 추진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로봇 활용해 딸기 재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스마트팜 공동연구 협약



담양군이 29일 로봇을 활용한 담양딸기 재배 기술개발을 위한 협약을 하고 있다.

담양군이 로봇을 활용한 딸기 재배 기술 개발로 첨단 농업 허브로 발돋움한다. 담양군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경권 연구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전북 기술실용화본부와 함께 농업용 로봇 및 스마트팜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 대응 첨단온실에서 지능형 농장 및 인공지능(AI) 로봇을 활용해 담양 딸기의 재배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농업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담양 딸기 스마트팜 운영과 실증 연구 및 기술지원, 담양 딸기의 생육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온

실과 로봇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협력한다. 또 로봇 활용에 적합한 딸기 신품종 개발 및 맞춤형 재배 기술 연구를 넘어 해외에 담양 딸기 신품종 재배 관련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담양을 첨단 농업기술의 허브로 육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스마트팜 및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효율적인 농업 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세 기관이 협력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친화적인 농업 모델을 개발해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장흥버섯산업연구원, 특허·기술이전 65건

추계학술대회서 버섯 산업 발전 '공로상'...농가 컨설팅 진행도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이 최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사)한국버섯학회 20주년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버섯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관상을 수상했다. (사진) 이번 수상은 연구원의 버섯 품종 개발과 생산 기술 혁신에 힘입은 결과로, 버섯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장흥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2006년부터 버섯의 고부가가치화 및 미래 산업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설립 이후 52건의 특허 등록을 포함한 99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다. '표고버섯으로부터 비타민 D2를 수득하는 방법'을 포함한 13건의 기술이전과 30건의 산업체 지원을 수행했다. 장흥버섯산업연구원은 지역 재배 농가의 현장 점검 및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생물 자원 주권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지역 재배 환경을 적용한 신품종 2종(홍화 1·2호)을 출원했다. 농가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원목종균 자동 접종기 개발에도 성공했다.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해 버섯의 기능성 소재로의 산업 확장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센터 건립 후 진균류 대량 배양을 수행해 바이오 산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연구원뿐 아니라 장흥군 전체의 버섯 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혁신을 통해 버섯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희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아와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 모습.

건강 걷기·생활체조...장성 남녀노소 "운동은 즐거워"

장성군 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 업고 뛰어' 주민 만족도 ↑

장성군이 운동습관 형성과 건강생활 실천 확신을 위해 운영 중인 아와신체활동 프로그램 '건강 업고 뛰어'가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건강 업고 뛰어'는 매주 화요일 오전, 오후에 1시간씩 황룡강 일원에서 진행된다.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해 에어로빅, 생활체조, 노르딕 워킹, 맨발

걷기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전문 체육강사에게 부상 위험이 적은 신체활동 방법과 올바른 걷기 자세를 배울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성을 주민 김모 씨

는 "가을꽃도 구경하고 이웃들과 즐겁게 운동하기 하니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올해의 마지막 '건강 업고 뛰어' 프로그램 일정은 오는 11월 5일이다. 생활체조(오전 10시, 장안교 아래), 건강걷기(오후 4시, 황미르랜드)가 진행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농공 재배 활성화로 '농업 경쟁력' 키운다

재배 면적 전년비 203% 증가 농기계 지원·재해보험 등 지원 내년엔 700ha로...농가 소득 기대

강진군이 비대신 농공 재배를 활성화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고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고부가가치 농업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강진군의 농공 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203% 증가해 358ha에 이르렀으며, 내년에는 700ha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농가 지원에 나섰다. 강진군은 농공 재배 확대를 위해 농기계 지원, 재해보험 확대, 직불제 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공 재배는 벼에 대비해 옥묘와 이앙 과정이 없어 노동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공 재배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해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농가에 파종기 등 필요한 장비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해보험료의 95%를 지원하며, 습해에 취약한 농공의 재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농공은 정부의 전락작물직불제 대상 작물로, 쌀 생산 과잉을 방지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대체 작물로 2023년 적극 장려됐다. 강진군은 농공 재배 농가에 전락작물직불제를 통해 ha당 200~350만원을 지원 중이며, 군 자체적



강진원(왼쪽) 군수가 지난 7일 칠량면 율형촌씨(남부농협 농공 전문단지 소속) 농가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으로 농공 재배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해 추가로 ha당 50~150만원을 지급한다. 이로써 농가는 최대 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농공 재배를 통한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줄였다. 강진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자부담금을 50% 추가 지원해 농가가 실질적으로 보험료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습해에 취약한 농공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7일 남부농협 농공 전문단지 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농공 재

배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판매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진군은 농공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 초빙 교육, 현장 기술 지도, 가공·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벼를 대체할 고소득 작물로서 농공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7억원을 군비로 편성해 지원했다"며 "내년에도 농공 관련 예산 15억원을 편성해 농가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87홀 화순파크골프장 연말까지 무료 시범운영

화순군이 화순파크골프장 무료 시범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능주면에 자리한 화순파크골프장은 정규코스 81홀과 별도의 연습코스 6홀을 포함해 총 87홀, 10개 코스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파크골프협회와 파크골프연맹 두 곳의 공인구장 인증을 진행 중이다. 군은 파크골프장의 홍보를 극대화하고 이용객 친화적인 운영, 편의성을 갖춘 시설 환경 보완, 이용객 만족도 향상, 군 이미지를 제고 등을 위해 시범운영 연장을 결정했다. 무료 시범운영 기간의 이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12시, 낮 1시부터 5시 30분까지로 나뉘며, 1주일 전 10시부터 오전·오후로 나눠 온라인 예약으로 400명(100티), 현장 접수로 400명(100티)이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초기 잔디 활착 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인증 후 2025년부터 다양한 파크골프 대회와 관련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광주 근교 전원주택 합평 농토피아 분양

주택용지 55가구·텃밭 17필지

"광주 도심과 가까운 전남 합평에서 전원생활 즐기세요." 합평군은 도심 속 은퇴자와 귀농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통한 새로운 농촌마을 조성을 목표로 해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선분양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총 95억원을 투입해 해보면 산내리 일원에 주택용지 55세대, 농업용지 4필지, 텃밭 17필지를 조성하며 현재 공정률은 약 83%에 달한다. 평당 분양가는 주택용지가 60만원, 농업용지는 18만원이다. 단지는 광주시청에서 차량으로 약 25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15분 거리에 위치하며 국도 22선, 23호선과 인접해 교통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 또 용천사, 잠원미술관, 모악산 등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주변 환경은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 이번 사업은 주택용지와 농업용지를 동시에 분



합평군 해보면 농토피아 전원주택단지 조감도.

양해 귀농 희망자와 은퇴자들이 도시의 편리함을 유지하면서 자연 속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합평군은 현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선분양 공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11월 중순 온비드 시스템으로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해 11월 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합평=한수영 기자 hsy@